

# 곤두박질치는 왕

\* 10/26(화) 열왕기하 7 20-21장 / 스바냐 1-3장

## 유다왕국 18-25장

### ▶ 유다 왕 히스기야 18-20장

- 다윗의 길 / 29년 통치
- 앗수르 왕 산헤립, 유다 침공
- 랍사계의 전술
-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의 예언
- 왕의 병/기도/15년 생명연장/징표

### ▶ 유다 왕 므낫세 21:1-18

- 악한 왕 / 55년 통치
- 산당 재설치, 아합의 행위, 일월성신 승배, 성전을 더럽힘
-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이 선포됨

### ▶ 유다 왕 아론 21:19-26

- 악한 왕 / 2년 통치

유다 왕 요시야 22장-23:30

유다 왕 여호아하스 23:31-35

유다 왕 여호야김 23:36-24:7

유다 왕 여호야진 24:8-17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멸망  
24:18-25장

### Before 출치며 읽기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20:1).”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의 성격보다,  
병에 대한 그의 반응입니다.

기독교 나라를 구했던 왕이, 기독교 나음을 구합니다.

### ● 은혜 아니면, 곤두박질친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반응하십니다(20:4-6).

그의 행함,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임박한 죽음에서, 그는 나았습니다(20:7).

일시적인 완화가 아닌 완전한 회복임을

믿기 위해선, 징표가 필요했습니다(20:8).

### 참고도서

100주년기념 성서주석

두란노 HOW주석

성서유니온 열왕기

통성경 길라잡이

이야기로 푸는 소선지서

사람의 시간을 되돌리신 여호와께서

자연의 시계를 되돌려 응답하십니다(20:11, 사 38:8).

예루살렘은 십오 년을 더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부를 얻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로 왕 하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삼하 5:11-12). 히스기야는 영광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입니다(대하 32:25-31).

바벨론 눈에 보인 것은 언젠가, 모두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 • **찜에 빠지면, 곤두박질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많이 행하고,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립니다(21:2, 6, 16).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쌓을 만큼,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유다 죄악의 왕, 빌린(villain)이 등장했습니다.

므낫세는 ‘악’했습니다. 백성들은 악의 ‘찜’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21:9, 12).

왕궁과 성전 두 사랑, 두 지혜의 솔로몬은 타락하여 두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여호사밧까지 왕국의 일부를 ‘두 갈래’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여호람, 아하시야로 인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아합 집’ 같아졌을 때도,  
유다에 대한 신의를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55년 동안 유다의 배교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종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 • **교만 해지면, 곤두박질친다.**

예루살렘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었습니다(슥 3:1).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데, 부지런합니다(슥 3:7).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슥 1:7). 유다 땅의 멸망이요, 주변국들의 심판의 날입니다.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교만과 사랑을 꺾으시기 위함입니다(슥 3:11).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스바냐가 선포합니다(슥 2:3).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겸손한 ‘남은 자’를 구별하십니다.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으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슥 3:17).”